



김민석 총리,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원들과 조찬

-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 안정 기대, 환경공무원들 의견 청취 -
- 우기 대비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 및 친환경청소차 개발·보급 당부 -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(월) 오전, 순대국밥집(서울시 노원구 소재)에서 환경공무원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.

* (참석) 노원구 환경공무원 6명, 금한승 환경부 차관,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

○ 이번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(7월 21일)을 맞이하여 자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,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마련했다.

□ 김 총리는 먼저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신청 안내문이 붙어있는 식당에 도착하여 사장님에게 “24시간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새벽 시간에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□ 이어서, 김 총리는 환경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며 야간 작업에 따른 근무 여건 및 안전 사고 발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.

□ 한편, 김 총리는 최근 강우로 인한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, “우기 대비하여 담배꽂초 등 빗물받이의 주기적 청소가 중요”하다며, 노원구청장에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.

- 아울러 “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청소차 보급이 중요하다”라며, 환경부에 친환경청소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이호기 (044-200-2341)
		담당자	서기관	박금채 (044-200-2351)
		담당자	사무관	윤남웅 (044-200-2352)